

#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여전...근절대책 없나

### 광주·전남 성인용품점 꾸준히 적발...성매매 업주 징역형도 규제 사각 전자담배판매업소 우후죽순...학부모들 전전공공 절대보호(50m)·상대보호(200m)구역 규정에도 효과 미미

광주·전남 초·중·고등학교 인근 유해시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꾸준히 진행됨에도 유해시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법 상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광주·전남 학교 인근에 판매 업체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

◇학교 앞 유해업소 적발 꾸준=22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학교 주변 유해환경 합동단속 점검결과 적발된 업체는 2020년 1건(광주시 북구), 2022년 2건(동구·서구), 2023년 5건(동구, 광산구 2건, 목포 2건)으로 꾸준하다.

올해 상반기에만 광주에서는 서구와 동구에서 2건이 적발됐고, 목포에서도 1건이 적발됐다.

대부분 적발 업체는 성인용품 판매업소였다. 올해 상반기 동구의 한 유치원과 195m 떨어진 거리에 성인용품점이 있었고, 서구 광주가톨릭대학교 127m 전방에도 성인용품점이 영업 중이었다.

성인용품점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자유업종이라는 점에서 현장 단속을 해야만 적발할 수 있다.

자유업종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고만 하면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연중 2회(상반기·하반기) 진행되는 점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교 인근 유해업소 단속의 근거 법령은 '교육환경법'과, '청소년 보호법' 등이다.

절대보호구역(직선거리로 50m)과 상대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직선거리로 200m까지)으로 나뉘어 교육환경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

거나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유해업소, 담배자동판매기, 게임물시설, 사행행위영업,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청소년 유해시설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지정하는 비디오방, 성인 대상 유흥접객이 이뤄지는 업소, 성인매체유통업, 담배소매업 등이다.

◇학교 인근 성매매업소까지 = 최근 광주시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50m떨어진 곳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 A(34)씨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한 빌라에서 유명프랜차이즈 분식점 이름을 그대로 쓴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빌라의 4개 호실을 임차한 A씨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신체적 접촉이나 성교 행위 등을 목적으로 영업을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에도 광주시 광산구의 한 학교 인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같은해 11월 까지 6개의 마사지방 카운터 등을 갖추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기소됐다.

해당 업소는 광산구의 한 중학교로부터 85.59m, 인근 초등학교로부터 153.82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액상형전자담배는 사각지대 = 22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광주시 북구 중흥동 효동초등학교 인근(150m 앞)에도 전자담배 판매점이 운영되고 있었다.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을



22일 오후 광주시 남구 진월동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굣길에 학교 인근(150m내)에 있는 전자담배 가게 앞을 지나고 있다. /장혜원 기자 hey1@

담배로 취급,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하지 않고 있는 탓에 현행법상 액상 전자담배를 청소년 유해 물질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물론 학교나 유치원 인근에 판매점 설치를 규제하는 규정도 없다.

광주시 남구 진월동 효덕초와 동성고 인근 문구점 옆에도 전자담배 판매업소가 자리잡고 있다.

액상 전자담배 판매점 업주는 "학생들이 가게에 들어온 적은 있지만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구매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

했다.

하지만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자극적인 유혹에 쉽게 노출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김정운(여·44)씨는 "중학생들이 아파트 단지에 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본적이 있다"며 "학교 앞에 버섯이 담배 가게가 있다. 학교 주변에 담배 판매업소가 있으면 학생들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호기심에 피울 수 있을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오늘날 기술의 발달과 다양화로 학생들이 어린나이에도 손쉽게 자극적인 요소들을 접할 수 있게 된 만큼 스쿨존 내 전자담배 판매점 등이 있으면 자연스레 호기심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자체에서 학교주변 유해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감사관 채용 외압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영장 신청

경찰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당시 교육감 동장의 점수를 부당하게 상향해 준 시교육청 담당 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시교육청 간부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사 담당 팀장인 A씨는 2022년 8월께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

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은 감사를 벌여 광주시교육감의 고고 동장이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면접 시험 점수 순위가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인사담당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감사결과 감사관으로 임용된 B씨는 면접 평가에 참여한 지원자 5명 중 3순위에 그쳤으나 점수가 올라 최종 2위로 변경됐다.

A씨는 면접시험 점수 순위를 바꾸기 위해 평가

위원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를 포함한 2명이 최종 후보자로 추천됐다. 감사관으로 선정된 B씨는 각종 의혹이 일자 지난해 4월 사임했다.

경찰은 시교육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A씨가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감사관 채용 면접관 2명과 시 교육청 인사 결재 라인 등의 관련 여부도 수사해 달라고 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이 건도 수사 중이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3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

## 6·25 광주 도심 폭주족 일당 7명 검거

### 3명 미성년자...경찰 추가 수사

한국전쟁 기념일인 지난달 25일 새벽 광주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한 폭주족 일당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경찰청 교통과는 오토바이 난폭 운전 등을 한 7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공동위험행위 금지)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25일 새벽 오토바이 폭주족 행렬에 가담해 광주 수완지구, 광천사거리, 광주역 일대를 질주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했다.

이들 중 3명은 미성년자로 확인됐으며, 7명 모두 면허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6·25를 맞이해 SNS에 올라온 폭주족 모임 공지를 보고 광주와 전남 각 지역에서 각각의 오토바이나, 지인의 오토바이를 빌려 합류한 것으

로 드러났다. 오토바이를 탄 이들은 앞뒤, 좌우로 대열을 이뤄 시내 도로를 통행하며 주요 교차로에서 일명 '원돌이' (오토바이끼리 원을 그리며 빙빙 도는 행렬)를 반복하거나 소화기를 분사해 차량 흐름을 방해했다.

이날 새벽 3시에 광천사거리에서 이들을 구경하던 고교생 등 미성년자 3명이 폭주족이 이동한 직후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에 휘말려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이외에 추가 일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경일이나 기념일 때마다 반복되는 오토바이 난폭운전 등 불법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며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주동자를 반드시 사법처리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문 잠기지 않는 차량 골라 10여차례 금품 훔친 30대 구속

문이 잠기지 않는 차량을 골라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2일 광주북부경찰은 빌라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2시 30분께 광주시 북구 빌라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 침입해 결혼식 축의금 19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훔친 1900만원 중 70만원만 남기고 모두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3개월간 10여 차례 광주 전역에서 문이 잠기지 않는 차량을 골라 금품을 훔쳐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다니던 A씨는 북구 풍향동의 한 PC방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도주 우려와 재범인정 등을 고려해 20일 A씨를 구속했다. /김다민 기자 kdi@

함께하는 100년 동행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햇살론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히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